

2012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우리 회사가 시공한 운암대교가 10월 8일 파이낸셜뉴스 신문사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2012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특별부문(밤에 아름다운 다리 부문)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운암대교는 친환경 및 자체 특허공법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5개 주탑을 갖춘 국내 최장 910m의 왕복 4차선 엑스트라도즈드교로 국도 27호선의 교통난 해소와 전북 서남부 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 등을 위해 발주된 순창~운암 4공구 도로확장공사의 주요 구간이다. 섬진강, 아름다움, 배, 신선, 고향 등을 각각 상징하는 5개 주탑을 갖춘 운암대교는 상판 측면의 수평라인에 투광기와 배면 조명을 설치하는 등 과거 섬진강의 주 이동수단이었던 황포돛배의 돛과 옥정호를 밝히는 햇불형상을 상징화해 설계됐다. 또 아름다운 옥정호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적정 높이의 주탑과 간결한 단면 설계로 구조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점 등이 전라북도의 랜드마크 교량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10년에는 우리 회사가 시공한 당산동 예가 클래식이 국내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의 우수 사례로서 관련 산업분야의 저변 확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국토도시디자인대전 도시/단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2 BIM Awards 시공부문 우수상 수상

우리 회사는 11월 28일 빌딩스마트협회가 주관하는 '2012 BIM Awards'의 시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2 BIM Awards'는 총 4개 분야(BIM Vision Award, BIM Design Awards, BIM Construction Awards, BIM Green Awards)이며, 국내 건설분야의 BIM 활용도에 대한 국내 설계사 및 건설사의 수준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이다. 우리 회사는 2010년부터 꾸준히 참가해오고 있으며, 2010년 대상, 2011년



Best Practice상, 2012년 우수상을 수상으로 3회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건설사가 참여하는 시공부문의 경우 당사의 BIM 엔지니어링 수준 및 그 활용도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본 수상을 통하여 조달청 발표 2013년 500억 이상 BIM발주, 2015년 모든 공사 BIM발주에 대비하여 우리 회사가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012 Good Design(GD) 3개 부문 5건 선정



우리 회사가 출품한 디자인이 9월 27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12 굿 디자인(Good Design, GD)' 심사에서 전기제품(비상용 조명등)/공공디자인(자전거 거치 시스템)/건축(구리아트홀, 스테이트 타워 남산, 별내신도시 쌍용 예가)부문 총 5 작품이 선정됐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부문 18건, 환경부문 8건, 공공디자인 부문 1건, 제품 부문 1건, 소개 부문 2건 등 총 30건의 GD(Good Design)을 보유하고 있다.

제8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

건설환경협회에서 주관하고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제8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1월 23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본 경진대회는 총 35개사 450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엄정한 예비 심사를 거쳐 15개사 20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우리회사는 안전환경팀(김종극 대리)의 'TTP제작장 설치를 통한 토양, 수질오염 예방'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



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설환경관리분야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더욱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ASME 인증심사 통과



우리회사는 지난 9월 11일 부터 13일까지 3일간 ASME(미국 기계기술자협회)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를 수검하여 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2011년의 국내 원자력발전 건설참여에 필요한 KEPIC 인증 취득에 이어 해외 원자력발전 건설참여에 필요한 ASME 인증까지 모두 취득하게 되었다. ASME는 미국기계기술자협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머릿글자로서 ASME인증은 원전건설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ASME가 신뢰성을 인증하는 증명서로 해외 원전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자격요건이며, 이중 건설사가 취득할 수 있는 인정서의 종류는 NA(Nuclear Assembly), NPT(Nuclear Parts), NS(Nuclear Support) 등 3가지가 있으며, 우리회사는 3가지 인증심사를 모두 통과하였다. 원전건설은 안전성을 기본으로 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ASME 인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한 품질시스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이룰 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ASME로부터 공인 받았음을 의미한다.

PS-S 흙막이 가시설 기술, 녹색기술 인증 획득



‘PS-S 흙막이 가시설 기술’이라는 기술이 지난 9월 2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녹색기술로 인증되었다. 이 기술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각형강관 버팀보를 결합하여 H-형강을 이용한 재래식 공법 대비 버팀보의 설치간격을 기존의 3~4m에서 최대 10m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H-형강 버팀보 보다 상대적으로 좌굴 및 비틀림에 유리한 각형 단면구조를 가지고 있는 폐단면 각관 버팀보의 사용으로 약축보강이 불필요해져 강재 사용량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이러한 강재의 감소 뿐만 아니라 넓은 작업공간 확보로 인하여 시공기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장비 사용 시간 단축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40% 감축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녹색기술로 인증되었다. 녹색기술 인증 획득으로 조달청 PQ 심사시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취득하게 되어 관공사 수주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싱가포르 ACUUS 국제컨퍼런스 참가 및 논문 발표

싱가포르 암반 및 지질공학회(SRMEG)가 후원하고 도심지하공간 연구센터(ACUUS, Associated research Centers for the Urban Underground Space)가 주최하는 제13회 ACUUS 국제컨퍼런스(13th World Conference of ACUUS)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우리회사 토목담당 조현 상무, 토목기술팀 이기환 부장 외 3인이 지하공간 토목현장의 BIM 적용에 대하여 ‘Integrated BIM Management System and Its Applications on Underground Sites’란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으며, 이를 토목기술팀 이영수 대리가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회사 SIMEC 현장의 배민혁 과장이 현장에 적용된 Super Beam의 설계와 시공에 대하여 ‘The Use of Superbeam in Deep and Irregular Excavations’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지하 공간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간의 연구성과 및 세계적 트렌드에 대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하 대공간 개발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행사이다. **S**